

“신청 헛갈려” 혼잡 피했지만 헛걸음 잦았다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첫날

온라인 신청 사전 시행에 방문 신청 줄임 현상 없어 대리 신청 규정 까다롭고 5부제 시행 여부 몰라 혼선

“시아버지 대신 신청하러 왔는데 위 입장을 안 가져왔어요.” “방문 신청은 5부제가 아닌줄 알았는데... 모레 다시 와야겠네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첫 날인 18일 제주지역 동주민센터에는 아침부터 지원금을 받으러 온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시작된 후 이미 상당수 시민들이 신청을 마친터라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는 신청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헛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제주시 건입동을 비롯한 도내 읍면동주민센터는 이날부터 일제히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현장 신청은 온라인처럼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 5부제 방식으로,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세대원이 대리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 세대주 명의의 도장을 갖고와야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신청서 제



분비는 주민센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첫날인 18일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가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출에서부터 선불카드 발급까지 대략 10분 남짓 걸렸다. 대기 인원도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접수처에는 평균 10명 안팎의 주민들이 있었다. 1주일 일찍 시행된 온라인 신청과 5부제 시행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피할 수 있었다. 건입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센터를 찾아 지원금을 신청한 세대주 또는 대리인은 150여명으로 집계됐다. 건입동에 4000여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이날 하루 전체 세대의 약 3.8%가 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정해진 요일

을 맞추지 않거나 위임장 등을 갖고 오지 않는 바람에 허탕을 쳤다. 시아버지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던 김모(57·제주시 건입동)씨는 “방문 신청은 5부제가 아닌 줄 알았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아침부터 발품을 팔았는데 아쉽다”고 허탈해했다. 박모(67·제주시 건입동)씨는 “세대주인 남편이 바빠 대신 신청하러 왔는데 도장과 위임장을 안 가져왔다”며 “꼭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족끼리는 서로 위임장을 대신 작성해도 좋을 것 같은데, 대리 신청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토로했다.

건입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급한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와 함께 사는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위임장을 갖고 오지 않아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었지만 정부 지원금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게 계속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강다혜기자

제주·서귀포시장 공모에 8명 응모

고위 공직자·정치인 등 거론

민선7기 제주도정의 후반기 행정시장을 공모한 결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 총 8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양 행정시장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장에 3명, 서귀포시장에 5명 등 총 8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장에는 도내 인사 2명, 도외 인사 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장은 도내 인사 3명, 도외 인사 2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양 행정시 공모와 관련 전·현직 고위공직자 출신과 정치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모가 마감됨에 따라 행정시장 선발시행위원회를 구성,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임용예정 직위별로 각각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도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되며,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정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도의회는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7기 후반기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기반으로 도정의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행정공백 없이 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신문 발행권 무상 양도한 사주 벌금형

신문 발행 권한과 상표권 등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동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신문사 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장판사 노현미)는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회장 김모(7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적용 혐의를 업무상 배임 미수로 변경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주식

회사 제주일보사의 신문 발행 권한과 상표권 등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없이 동생이 보유한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에 무상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회사 돈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나중에 현 제주일보로부터 신문 발행 권한 등을 되돌려 받았지만 김씨가 당초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상민기자

은행 ‘여유’... “온라인 접수, 5부제 해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18일 제주지역 은행 창구는 대체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은행 본점을 비롯한 대부분 영업점에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하면 되고, 창구 혼잡을 방지하

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김중희 제주은행 연삼로지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창구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인데 카드번호만 이야기 해 주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혼잡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다만 “1주 차에 시행되는 5부제를 모르고 오는 사람도 간혹 있어 5부제가 없어진 온라인 신청으로 해결해 주었다”고 말했다. 고대희기자

“대안 찾기엔 토론 필수도, 열린 자세로 나서야”

비자림로 시민모임 촉구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이하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비자림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안전, 상태보전, 용량 중 어떤 가치를 얼마나 우선시 할 것이며 가장 합당한 대안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에 제시한 환경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결국 단독으로 토론회를 주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제주도정은 전국적인 이슈였던 비자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자림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5·18, 진상 규명 과제 여전”

제주민중연대 성명서 강조

제주민중연대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성명을 내고 “5·18 광주민중항쟁은 제주 4·3항쟁의 기억·정신과 이어져 있다. 제주민중연대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으로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민중연대는 “5·18 당시 확산의 책임자인 전두환 등에 대한 완전한 처벌과 미국의 개입·묵인에 대한 진상 규명 역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쟁 이후 40년 동안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만 획득했을 뿐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기까지

는 아직 그 길이 요원하다”며 “5·18 광주민중항쟁의 저항·연대의 정신을 호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축
수 상
이달의 새농민상

강철민·박금화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부지역고품질노지감귤연구회
회장 고 태 욱 외 회원일동

축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강 나 래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제주도 총회 회장 강원희 외 회원일동
진주강씨 정랑공파문중회 회장 강길현 외 회원일동
진주강씨 제주시 총회 회장 강인택 외 회원일동
진주강씨 제주도 청년회 회장 강영로 외 회원일동
진주강씨 정랑공파청년회 회장 강창균 외 회원일동

축
수 상
대통령 표창

양 정 숙
(영평초등학교 교장)

제39회 스승의 날을 맞아 유공교원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평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강 지 영 외 회원일동

축
취 임
신창중학교 총동창회장

김 계 춘

신창중학교 총동창회 제12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창초등학교 제31회 동창회
회장 좌 승 권 외 동창일동